

NGMC 포럼 구성 및 표준화 추진 방향

NGMC 포럼은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국 등의 4개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자문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감사 및 차세대 이동통신과 관련된 산·학·연 각 분야의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럼 역할 및 운영 방향, 해외 유사 포럼과 국제적 협력 및 공조 등 포럼 활동 전반에 관하여 자문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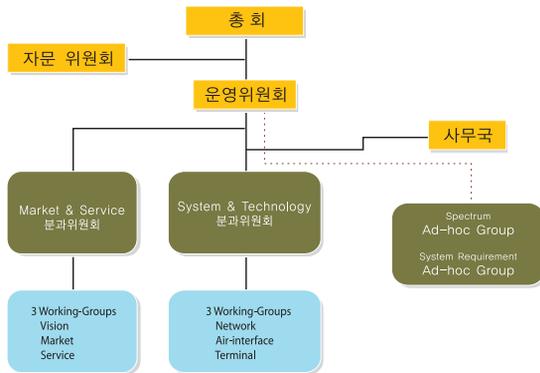
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들과 차세대 이동통신과 관련된 산·학·연 각 분야의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 규정에서 규정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사항,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심의, 이동통신 분야의 미래에 대한 방향제시 그리고 분과위원회에서 연구되고 결정된 결과물에 대해 최종적으로 포럼 문서로 제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분과위원회별 활동을 살펴보면 포럼의 분과위원회는 Market & Service, System & Technology 2개의 분과위원회와 Spectrum Ad-Hoc 그룹, System Requirements Ad-Hoc 그룹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제조업체, 서비스 제공 업체 등과 같은 산업계와 대학, 연구소 등과 같은 연구기관들이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차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와 관련 기관들 간의 상호 협력 및 의견조율의 역할을 수행한다. Operation과 관련된 서비스에 관한 부분과 Manufacture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부분을 두 개의 핵심 축으로 하고, 주파수에 관한 부분을 협의하는 별도의 분과위원회와 그룹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Market & Service 분과위원회에서는 국내외 이동통신 진화의 기술적, 사회적 동향 및 시장, 서비스, Application 발전 동향 분석을 통한 차세대 이동통신의 시장과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System & Technology 분과위원회는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Architecture, 요소기술 개발 및 규격 표준화, 국제적

협력을 위한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Spectrum Ad-Hoc Group은 차세대 이동통신의 주파수 활용방향 제시를 주 역할로 활동하고 있으며, System Requirements Ad-Hoc 그룹은 IMT-Advanced 시스템 요구사항 정립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사무국에서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간의 의견 교환 및 분과위원회들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총회, 분과위원장 회의, 운영위원회의, 실무 협의 등의 각종 관련 회의를 주관, 개최하며,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의 행사개최 지원을 통해 포럼 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한 문서 작업 및 홈페이지 구축, 운영 및 해외 관련 기관과의 연락 등과 같은 대내외적인 홍보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포럼의 구성과 함께 NGMC 포럼에서 추진하는 표준화 방향을 살펴보면, 기술개발 및 표준화 선도, 개념 정립 및 대체 서비스 발굴, 신성장 동력 추진 주체, 국제 교류 4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NGMC 포럼은 표준화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하므로, 이를 토대로 표준화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개발 및 표준화 선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차세대 이동통신은 아직 개념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만큼, 향후 수많은 관련 기술의 개발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특허권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국내 표준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 차세대 이동통신 포럼은 이러한 조속한 국내 표준 제정을 위해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 원천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에 앞장서야 하며, 또한 전 세계 차세대 이동통신 관련 기관 및 회의에 국내에서 제정된 표준을 상정함으로써, 차세대 이동통신 관련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을 주도함을 목표로 삼고 있다. 차세대 이동통신 개념정립을 위한 공동 연구의 장을 마련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시장 포화



〈그림 1〉 NGMC 포럼 조직도



〈그림 2〉 ICB3G-2006 현장 사진

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 서비스를 발굴하며, 정보통신부의 신성장 동력 중에서도 가 핵심 분야인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는 주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IT 산업을 주도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블록을 형성하여 북미, 유럽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국제 기관들과의 공동 협력 창구의 역할 수행을 목표로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운영 목표에 맞게 올해는 ICB3G-2006(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eyond 3G Mobile Communications)와 WWRF, mITF, FuTURE 포럼이 참여하는 Cross Forum Meeting도 NGMC 포럼이 주체가 되어서 개최하였으며, 국내외 기업과 국제 협력 증진에 기여를 하였다.

NGMC 포럼의 대표적인 활동 결과물을 살펴보면 System & Technology 분과위원회에서 발간한 '차세대 이동통신(NGMC) 기술 백서', Market & Service 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 'NGMC Vision 2005 Ver. 1.0', System Requirements Ad-Hoc Group의 'IMT-Advanced System Requirements Version 1.0' 가 있다. '차세대 이동통신(NGMC) 기술 백서'에서

는 차세대 이동 통신 개념 모델을 제시하고, system requirements, technical trends, interworking, 표준화 단체의 개요 및 동향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으며, 'NGMC Vision 2005 Ver. 1.0'에서는 차세대 이동통신 Vision, CoPE-Convergent and Pervasive u-society Enabler, Requirements, Reference Model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IMT-Advanced System Requirements Version 1.0'에서는 NGMC 차세대이동통신의 비전에 근거한 미래의 사용자 서비스, 대한민국의 주파수 사정, 새로운 무선접속 기술, 단말기, Access Network 기술, IP Service Network 기술, Service and Content Provider 관련기술 등의 관점에서 IMT-Advanced 시스템이 가져야 할 요구 사항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NGMC 포럼은 창립 목표에 맞게 한국 차세대 이동 통신 발전의 장으로 발전시키고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포럼의 활발한 활동과 그에 따른 결과물들은 국가와 이동통신 관련 사업 및 기업 발전에 큰 영향과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이동통신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확신으로 NGMC 포럼은 활동하고 있다. **TTA**